

현금 비상... 빚 20조 늘린 상장사

상장사, 차입금 의존도 22.5%
회사채 자금조달 5.3조 급증
투자현금지출 ↓... 투자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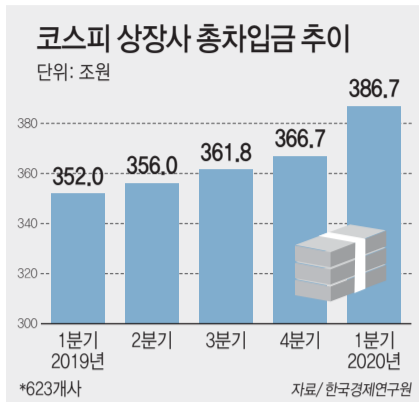
국내상장사들이코로나19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총차입금이 1분기 기준 386조7000억원으로 20조원이 늘었다.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상장 623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분기별 증가액(약 5조원)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말(21.6%)보다 0.9% 포인트 늘어난 22.5%를 기록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은 작년 말보다 5조3000억원 늘었고, 은행 등 차입금도 14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2~4월 회사채 시장이 냉각되며 기업이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영업현금유입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3.0% 줄었다. 투자현금지출은 26.4% 감소해



투자도 위축됐음이 확인됐다. 재무활동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늘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 대형유통, 관광·레저, 조선, 섬유 의복 5개 업종은 올해 1분기 차입금의 의존도가 모두 상승했다.

작년 말과 비교해 항공업이 5.3% 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조선(2.3%포인트)과 관광레저(1.4%포인트), 대형유통(1.1%포인트)과 섬유의복(0.8%포인트) 순이다.

재무현금흐름을 보면 항공, 관광레저, 조선업은 차입과 증자 등으로 자금 조달을 늘렸다. 대형유통과 섬유의복은 총자산이 줄어들어 차입금 의존도

를 낮추게 됐다.

현금흐름표로는 영업현금흐름이 5개 업종이 모두 악화됐다. 항공, 대형유통, 관광·레저, 조선업 등 업종은 1분기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면서 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섬유 의복 분야도 영업현금 유입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10분의 1에 머물렀다.

투자가 활발할수록 현금 유출이 커지는 투자현금흐름도 대형유통과 관광·레저 업종에서 작년 1분기보다 현금 지출 폭을 줄였다. 항공과 조선, 섬유 의복은 투자 자산을 매각해서까지 현금을 확보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경제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자금 조달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자금공급이 막힌 곳은 없는지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타 결제네트워크서 사용가능 '페이ID' 개발

코인원 등 40개사 참여



"페이ID가 바로 결제용 오픈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이다."

오픈페이먼트연합이 개발한 '페이ID'를 두고 리플의 오픈 플랫폼 익스프링의 이던 비어드 수석부사장이 남긴 말이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리플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기관이 결성한 오픈페이먼트 연합이 서로 다른 결제 네트워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페이I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지난 19일 공개했다.

모든 기업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페이ID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결제용 오픈 소스다.

페이ID 계정은 이메일 형식으로 직관적이며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 서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통일성 없는 계정 때문에 감수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페이ID는 은행, 결제 및 송금 서비스 제공업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기업의 경우 페이ID 사용 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각국의

법정 통화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엔드 투 엔드' 방식의 트래블 룰(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 의무화 규제) 준수 방안도 제공한다.

페이ID는 리플과 코인원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핀테크 유니콘 기업 고젝·영국 대표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닷컴·미국 블록체인 기반 브라우저 브레이브 등 글로벌 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오픈페이먼트 연합을 통해 개발됐으며 관련 기업 전체 고객 수는 총 1억 명에 달한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페이ID는 송금 과정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금융 일상에 큰 혁신을 일으킬 솔루션이기에 코인원 또한 파트너사로서 페이I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금융위, 기업부담 던다... 직권지정제 재정비

표준감사시간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제도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사유 삭제 감사인선임위 정족수 5명으로 축소

앞으로 감사인과 기업인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 기준이 완화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제도를 개선해 회계 개혁을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지정제,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의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 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단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절차도 규정한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회가 정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 회사측 의견이 고무 반영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 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돼 있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상도 채권금융회사 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마이크로소프트를 활용해 구현한 청와대 모습.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엔택트 #K방역 #Z세대 뉴노멀 시대 이끌 키워드·선도사업 발표

관광공, 관광 패러다임 변화 대응 관광지 소개에 증강현실 활용 랜선 가이드와 한국여행 추진

한국관광공사가 Z세대(1997년 이후 출생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네이버서비스의 글로벌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를 관광지 소개에 활용한다.

한국관광공사는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국제관광 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키워드, 11대 사업을 발표했다.

공사가 정한 4대 키워드는 ▲디지털 캠페인 ▲엔택트 마케팅 ▲K-방역 선도 ▲Z세대 타겟 마케팅이다.

우선 디지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로컬이 소개하는 진짜 한국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해외에 홍보하는 소비자 생산 콘텐츠(UGC) 활용

사업이 실시된다. 또 소비자가 참여하는 한국 대리 여행 온라인 이벤트가 열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캠페인 통합슬로건과 한류스타가 등장하는 응원 영상도 제작된다.

엔택트 마케팅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 관광 온라인 박람회'에서 원격 회의, 홀로그램 등 관광과 IT를 접목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관광업계를 온라인으로 잇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랜선(온라인) 가이드'와 함께하는 한국 여행이 추진되고, K-서포터즈(가칭)를 이용해 한국 관광 콘텐츠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K-방역을 선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관광 교류를 이끌고, 온라인 여행 예약 대행(OTA) 서비스 및 항공사와 제휴해 대규모 방한 여행 프로모션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4일 이들 사업을 담당할 '뉴노멀 시대 K-관광 추진단'을 발족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지난해 선원 월급 474만원... 전년과 비슷

해양수산부 '2020년 선원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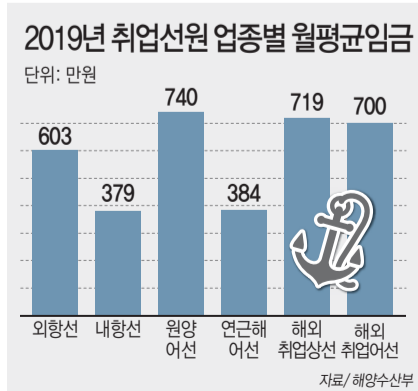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인 선원의 평균 월급은 474만원으로 조사됐다. 원양어선 선원의 월 급여는 7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의 취업선원 현황, 임금 수준 등이 포함된 '2020년 선원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 임금 수준은 월 평균 74만원으

로 전년(469만원)보다 약 1.1% 증가했고, 10년 전인 2010년 말(364만원)에 비해서는 30.2% 상승했다. 지난 10년 물가상승률은 15.2%였다.

업종별로 월 평균임금은 원양어선이 7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외취업상선(719만원), 해외취업어선(700만원), 외항선(603만원), 연근해어선(384만원), 내항선(379만원) 순이었다.

한국인 선원 취업연령은 30대 이하가 20.2%, 40~50대 42%, 60대 이상



3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454명이었다. /한용수 기자 hys@